

투데이 칼럼

간직하고 싶은 좌우명

누구나 오랜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고이 간직하며 살아가고 싶은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좌우명은 무엇이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러한 좋은 좌우명을 실천하고 있는 훌륭한 분이 있어 지면에 소개해 본다.

한 달여 전에 전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후 전북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님과 점심을 같이 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점심을 들면서 이 원장님께서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시기에 대학교 총장도 되시고 또 전북연구원장까지 하시는지 궁금하여 평소에 간직하고 있는 좌우명을 여쭙본 일이 있다.

이 원장님은 자신이 좌우명으로 삼는 것은 겸손이며 조금 멋있게 보이는 용어로는 '躬身접수(躬身接水)'라고 하였다.

이 말의 뜻은 '아무리 훌륭한 보석 잔이라고 할지라도 찾잔이 찻주전자에서 물을 얻으려면 찾잔의 위치는 항상 찻주전자보다 더 낮아야 한다'라는 말로 '겸손과 겸양의 지혜를 중시해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출처는 그 유명한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이며, 제갈량(諸葛亮)이 서천을 점령하려고 서촉의 장승(張松)을 끌어들이기 위해 벌인 일화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였다.

장승이 서천의 지도를 당시에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조조(曹操)에게 바치려다 실망해 돌아가던 것을 알고 조운(趙雲)이 먼저 가서 모셔 오고 유비(劉備)가 극진하게 살인을 접대하자 장승이 이에 감동하여 유비에게 서천의 지도를 바쳤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계략은 모두 제갈량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전해진다.

이 원장님은 살아오면서 자리로 사람을 모셔 오거나 돈으로 매수하거나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감동을 하게 하여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만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원장님은 이러한 일화를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여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원장님의 훌륭한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이 원장님은 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시면서 1천여 분

의 박사이자 교수들과 함께 전북대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도 펼치고 무엇보다 대학교의 상징물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그 결과 전주의 아름다운 한옥을 널리 세계에 알리도록 정문과 광장에 있는 문화루를 한옥으로 만들고 대학교 내에 국제회의장도 한옥으로 멋지게 만드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을 펼쳤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 전북대학교 총장을 맡치고 전북연구원에 원장으로 가겠다고 하니 주위에서 많은 분이 걱정을 해주었다고 하였다.

전북연구원에는 박사들도 많고 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였더라.

그러나 이 원장님 자신은 전북대학교 교수 1천 여분도 모셔봤다.

전체 직원 90여 분밖에 안 되는 전북연구원 정도는 충분히 할 것 같은 자신감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전북연구원에 부임하여 180여억 원을 확보하여 한옥으

로 전북연구원도 새로 지을 계획을 실천하고 있으며, 전북연구원 90여 분의 직원들과 함께 늘 새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북 100년을 책임질 여러 가지 좋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식품 사막화를 막기 위한 시골 농어촌의 식품 공급 계획, 새만금 발전 계획, 2036년 올림픽 전북 유치에 위한 비용 추계 등 전북이 과연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살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연구를 위해 밤낮을 모르고 연구에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원장님의 이처럼 훌륭한 좌우명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하게 해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특별한 기술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은 과연 어떤 좌우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누구나 성공을 바라고 실패를 원하지 않지만, 성공은 자기 혼자만 잘 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 자신도 이 원장님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함께 성공을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공신접수(躬身接水)라는 옛 고사 성어를 잊지 않고 실천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원장님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여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만나는 사람이 모두 나의 스승이라는 겸양의 자세를 이어받아 이를 실천하게 된다면 남은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사설

칩거하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에도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외부 노출 없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근황 정도만 전해지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명태균 의혹 뿐 아니라, 도이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보니 야당은 이제 김 여사 차례라고 버리고 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202경비단 경찰들이 경계 근무 중이다. 관저 골목으로 접근도 막고 있다. 경호 인력은 확연히 줄었지만, 김건희 여사 경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관저 마당에선 직원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개들을 산책시키는 모습만 포착됐다. 지난해 10월 말 외교행사 뒤 석 달째 공개 일정이 없었던 김 여사는, 지금도 노출을 삼가며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여전히 검찰 수사 대상이다. 창원지검은 명태균씨가 김 여사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던 서, 김 여사가 비공표 여론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SNS 대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논란도 재수사가 필요한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수사가관 연락은 없었고, 수사에 대한 검토나 대응도 아직 없다”고 전했다.

야당은 “김건희 리스크가 윤석열 내란의 시작이었듯, 윤석열 체포는 김건희 의혹 진상 규명의 시작이 될 거다”, “대통령 남편 힘을 빌려 수사기관들을 능멸했던 추억들을 지우고, 달게 처벌받기 바란다”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또, 여러 차례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김 여사 특검법’도 곧 재추진할 계획이다.

제6회 선학평화상

제6회 선학평화상 수상자로 3명이 선정됐다. ‘패트릭 아우아’는 아시시 대학교(Ashesi University)를 설립해 아프리카 젊은 인재들이 STEM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졸업생의 90% 이상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에 성공했다. 여성 졸업생 비율이 50%를 차지해 아프리카의 성평등 증진에도 기여했다.

‘유 에반스’는 Global Citizen을 설립해 약 436억 달러의 자금을 빈곤 퇴치와 개발 프로그램에 유치하며, 전 세계 139억 명 이상의 빈곤층이 필수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

‘완지라 마타이’는 그린벨트 운동을 통해 5,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삼림 파괴와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수상자들은 교육을 통한 윤리적 리더십의 육성, 글로벌 시민 운동을 통한 사회적 변혁, 환경 보전과 지역사회 재생의 조화를 통해 빈곤, 불평등, 기후 변화와 같은 시급한 문제들에 혁신적인 해답을 제시해 왔다.

특별상 수상자인 ‘사나나 구스마오’는 동티모르 독립과 국가 재건에 헌신한 지도자로, 초대 대통령과 총리를 역임하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정착시킨 인물이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동티모르의 평화와 발전을 이끌었다.

특히 분쟁으로 고통받는 국가들 간의 글로벌 연대를 주도한 업적이 크게 인정되었다. 인권 존중, 갈등화합, 생태보전 세 가치를 추구해 온 선학평화상은 지난 10년 동안 지구적 긴급난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고 고군분투한 의인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왔다. 시상식은 4월 1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피해 예방을 위한 임시숙소 제도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피해자 임시숙소란 주거지 내 각종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 피해자와 전문보호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롯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는 경우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피해자 등 기타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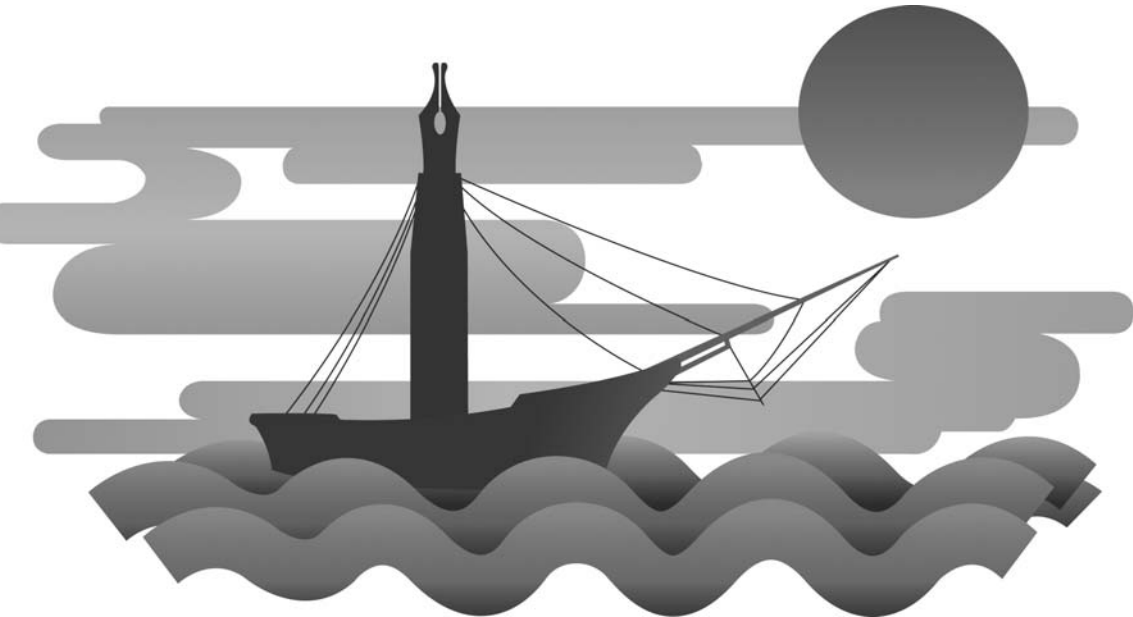
피해자 임시숙소는 경찰서에서 안전성·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숙박업소를 선정 후 단기간 머물 수 있으며 이 공간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철저히 비공개이므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이용하길 바란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지원 절차는 사건 조사 시 탐당경찰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제도를 안내할 때 범죄피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그 후 심사관자가 필요성이 판단되면 승인 후 경찰관이 안전하게 임시숙소로 연계하고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험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면 주저함이 없이 신청하길 바란다.

간혹 가정폭력의 경우 자녀가 있고, 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 망설이시는 피해자가 있는데 숙소에 자녀도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고, 위험한 현장을 잠시 피해 있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니 만큼 안심하고 이용하길 바란다. 구보민전인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